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교회세운날 1908.5.1

**우리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소서**
- 시편 119:133 -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탄 후 1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찬양 : 484.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2부 : 김재홍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김기석 목사
-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양떼와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살아온 나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시간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교우들이 있어서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청과 신앙공동체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피 주십시오. 미세먼지보다 어둡고 해로운 기운이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그치지 않고, 자연의 질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변화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맞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9:7 인도자
- ▲ 교 독 문 87. 계시록 21장 다 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 2부 대표기도 권혁순 장로
- 2부 응 답 송 반주자
- 2부 찬 양 397. 주 사랑 안에 살면 다 함께
- ▲ 성경봉독 빌 2:12~18 1부:인도자/2부:오자영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계

찬 양	I.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마중물 찬양대
	II. 은혜 아니면	청과 찬양대
말 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김기석 목사
거듭 기도	다 함께
2부 연 주	하나님의 은혜	이왕준 권사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구원을 위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노력하십시오.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십시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결하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것입니다.

다 함께 : 아멘. 이미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룬 사람처럼 아무런 열심 없이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다음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재훈
	2부 김기석	박범희	김명희	이범석
헌금계좌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십일조/월정헌금) 십일조/월정/주일, 기타			
	새마을금고 9002-2033-2892-7 (감사헌금)		감사/생일감사/추수감사/OO감사	
	새마을금고 9002-1358-4805-8 (장학금)		청과장학회, 교회 교육	
	새마을금고 9002-2030-8023-7 (선교헌금)		선교, 교회 파송·개혁	
	새마을금고 9002-2032-2714-0 (구제/녹색꿈헌금) 구제/긴급구호/녹색꿈/00지원			

